

우즈베크어와 한국어 파생법 관련 논문 사례 연구
CASE STUDIES OF UZBEK AND KOREAN DERIVATION PAPERS



<https://doi.org/10.5281/zenodo.6653786>

Maftuna Kamarova

Samarqand davlat chet tillari instituti
Sharq tillari kafedrası Koreys tili o‘qituvchisi

요약

우·한 파생어의 선행 연구를 통시적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즈베크어와 한국어의 각각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조어법 및 파생법의 목록을 참고 검토하면서 파생어의 목록을 정리하였다. 선행 연구를 파생어에 관한 연구와 파생어 교육에 관한 연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한국어와 우즈베크어의 조어법과 파생어를 연구한 여러 학자들의 연구와 의견을 살펴보았다. 위 학자들의 연구 견해를 보면 한·우 파생법에서 유사하게 파생접사로 쓰이는 것도 있고 다르게 쓰이는 파생접사들도 많다.

키워드: 조어법, 파생어, 파생법, 파생접사, 형태소

ABSTRACT

It is necessary to comto the prior study of Wu and Han derivatives from a general point of view. The list of derivatives was summarized by reviewing the list of expletive and derivative methods presented in the prior studies of Uzbek and Korean, respectively. The previous research was divided into two categories: the study of derivative languages and the study of derivative education. This paper examines the research and opinions of several scholars who have studied the expletive and derivative languages of Korean and Uzbek. In the research view of the above scholars, there are many similar derivational affixes in the Han and Wu derivational laws, and there are many different derivational affixes.

Keywords: Expletive, derivative, derivative, derivative, morpheme

АННОТАЦИЯ

Предыдущее изучение производных Ву и Хань необходимо рассмотреть с общей точки зрения. Список производных был обобщен путем просмотра списка ругательных и производных методов, представленных в предыдущих

исследованиях узбекского 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ов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Предыдущее исследование было разделено на две категории: изучение производных языков и изучение производ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В этой статье рассматриваются исследования и мнения нескольких ученых, изучавших ругательства и производные языки корейского и узбекского языков. С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й точки зрения вышеупомянутых ученых, в деривационных законах Хань и У есть много сходных деривационных аффиксов, а также много разных деривационных аффиксов.

Ключевые слова: ругательство, производное, производное, производное, морфема.

우즈벡어와 한국어의 각각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조어법 및 파생법의 목록을 참고 검토하면서 파생어의 목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선행 연구를 파생어에 관한 연구와 파생어 교육에 관한 연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우·한 파생어의 선행 연구를 통시적 관점에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우즈벡어의 파생법과 파생어에 관한 연구들의 내용을 조사해 보면, 우즈베키스탄

의 독립 전과 독립 후의 연구들이 있는데 독립 전 연구들은 소련의 영향을 받은 언

어학 분야로서 러시아어학 연구들의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1989 년 10 월 21 일에

우즈베키스탄의 국어는 우즈벡어로 지정한 후부터 시작해서 우즈벡어만의 역사와

특성을 감안하면서 진행된 많은 학자들의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아직은 우즈벡어에

대한 언어학적 연구가 시급한 상황이다.

먼저, 우즈벡어 파생어의 관한 선행 연구에서 우즈베키스탄의 독립(1991) 후의 연구들을 검토했다.

X. Abdurahmonov, A. Rafiyev, D. Shodmonqulova 에서는 «형태론과 맞춤법»(1992)의 장에서 단어 구성, 조어법 그리고 접사 분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H. Jamolxonov «Hozirgi o'zbek adabiy tili»(현대 표준 우즈벡어, 2005)에서는 우즈벡어 형태론과 통사론 연구사로서 우즈벡어와 우즈벡어

문법에서부터 문장의 짜임새, 문법 요소의 기능과 의미에 이르기까지에 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기술하였다. Shavkat Rahmatullayev «Hozirgi O'zbek adabiy tili»(현대 표준 우즈벡어, 2006)에서는 형태소의 특징과 성격, 기능을 분류하면서 형태소 시스템을 설명하였다. 혹은 동일 형태소와 동일 접사들의 기본 원리와 품사별 차이를 정확하게 설명하여 우즈벡어 형태론에 있어 큰 공을 세웠다. Qalandar Sapayev 은 «Hozirgi o'zbek tili»(현대 우즈벡어, 2009)에서는 형태론, 형태소와 조어법에 대한 논술을 하였다. 이는 단어와 어근 및 어기의 분류와 특성, 접사들의 서로 동일 기능과 의미 기능, 조어법과 파생법에 대해 관범위하게 구명하였다. Azim Hojiyev 의 «O'zbek tili so'z yasalish tizimi»(우즈벡어 조어법의 시스템, 2007)이라는 연구는 우즈벡어 형태론에 있어 매우 큰 가치가 있다. 어학자는 이 연구에서 러시아어학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 우즈벡어의 역사를 고려하면서 우즈벡어만의 조어법을 연구하였다. 즉, 먼저 조어법에 관련 주요 개념들을 살펴보고 파생어의 구성인 어근과 접사에 대한 자세하게 설명하였으며 품사별 파생법을 검토하였다.

한국어 전통문법에서의 파생법 연구는 주시경의 <국어문법>(1910), <조선어 문법>(1911)에서 비롯되었다. 그 다음에 한국어의 학자 중 최현배(1936)는 단어 구조면에서 단어를 ‘홀씨’와 ‘겹씨’로 나누고 단일어와 파생어는 ‘홀씨’로, 복합어를 ‘겹씨’로 보았다. 이희승(1950)은 어휘론에서 단어의 구성에 따른 분류체계로 세분화하여 단어 구조를 제시하였다. 그는 단어를 단일어와 합성어로 나누고 합성어를 다시 복합어와 첩어, 그리고 파생어로 나누었다. 기주연(1991)에서는 파생과 굴절을 분리하고 이를 토대로 접사를 설정하여 파생어에 사용되는 형태소의 목록을 정리하는 작업이 있었다. 특히 파생어를 접두파생어와 접미파생어로 세분하여 논의하였다. 김계곤의 <현대 국어의 조어법 연구>(1996)는 파생법, 합성법 등 현대 국어의 조어법 이론 전반을 체계 있게 정리되었다. 또한 접사파생법과 파생법의 결합을 통하여 접사의 기준과 파생어의 내부 구조로 조어법적 측면에서 구명하고자 하였다. 이상복(1990)에서는 국어의 조어법을 형태소 복합어법 즉, 파생법과 합성법을 분

류하여 이의 유형들을 분류하였다. 송철의 <국어의 파생어 형상 연구>(2008)에는 국어의 파생형성에 대한 기술을 체계화하고 파생어 형성 규칙들을 정밀하게 보여주었다. 한국어의 접두사와 접두파생어, 접미사와 접미파생어에 관련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최균일(1989)은 <한국어 어휘

형성에 관한 연구>에서는 파생어에 대한 설명과 접두사와 접미사의 범주 처리 또한 파생어의 형성 규칙에 대한 논술하였다. 현대

한국어의 단어형성법과 연구 중에서 크게 파생어의 접두사와 접미사의 설정 기준,

생산성 그리고 각각의 유형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또 다른 연구자는 김

정은(1997)이다. 접두파생법에 대한 연구로는 중세 한국어 조어법의 연구 방법론을 제시한 허웅(1992)과 형태소의 의미와 형태론에서의 형태소 통합의 한계에 대한 연구를 한 김선득(1992)이 있다. 현대 한국어 접두사 목록은 김계곤(1968), 김규선(1971), 성환갑(1972), 서병국(1974)들의 연구에서 작성되었고 접두사의 타당성 여부와 설정 기준이 개별 접두사의 의미 파악과 더불어 진해되었다. 정동환(1984)에서는 접두사의 의미를 분석하여 중심의미와 주변의미의 상관성을

밝혔다. 이재성(1990)에서는 불명확한 접두사의 설정 기준을 정확히 하고자 관형사,

부사, 합성어의 선행 구성소와 접두사와의 자질 비교를 하였다. 접두사의 목록을 정

리한 연구는 이재홍(1992)과 최영한(1992) 등이 있다. 이들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접두사를 자료로 삼아 그 접두사의 성립 여부를 검증하였다. 이홍식(1993)은 고유어 접두사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접두사의 설정 기준으로 비독립성, 단음절성, 후속어근 독립성, 이원비유지성, 비합성어 선행소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제시한 기준에 의하여 접두사를 선정하였고 그 기능에 따른 분류와 의미에 따른 분류를 시도하였다. 김창주* 안효경(1997)에서는 현대 한국어 접두사의 확립 기준을 제시하였고 정영해(1997)에서는 한국어의 접두사화 연구를 두 가지, 즉 통어적 합성어 선행어기의 접두사화와 비통어적 합성어 선행어기의 접두사화로 나누었으며 각각에 대해서 논술하였다. 김무봉(1999)은 현대 한국어의 한자어 파생법에 대한 연구에서는 한자어 형태 범주와 접사 설정 기준을 제시하였고 이재성(1997)도 접두사 설정기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접두사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는 고유어 접두사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 접두사의 기능과 의미 분류, 접두사의 타당성 여부, 접두사의 설정 기준 등이 제시되어 있다. 한국어 고유어 접미사 설정과

관련 있는 연구들은 하치근(1987, 1989), 고영근(1974, 1989), 최정은(1976), 김정은(1994) 등이 있다. 하치근(1987, 1989)은 7가지의 설정 기준을 바탕으로 246 개의 접미사를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인칭접미사 77 개, 사물접미사 88 개, 행위접미사 35 개와 상태접미사 52 개 등이 해당한다. 고영근(1974)에서는 접미사의 확립 기준과 한계를 논의하고 어근과 접사의 통합관계를 규칙성과 불규칙성의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고영근(1998)에서는 접미사 설정기준을 의존성과 특수성, 어휘성을 떨 것과 조사나 어미와의 결합에 제약이 없을 것 등의 4 가지로 들면서 이 기준에 맞는 접미사 목록 638 개를 제시하고 있다. 최정은(1976)에서는 현대 한국어의 접미사의 여러 가지의 분류 기준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김정은(1994)에서는 접미사 목록 118 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접미사 설정 기준을 크게 형태, 기능, 분포, 의미면으로 나누어 의존성과 통사 범주의 변화, 분포의 제약과 어기의 어휘적 의미의 첨가 또는 제약 등으로 정하였다. 한국어의 고유어 접미사 관련 연구들을 살펴본 후 실제 접미사를 설정함에 있어서 형태나 기능 면에서 이와 유사한 조사와 어미, 그리고 의존명사와의 구분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논자에 따라 제시하는 접미사 수의 차이가 나게 된다. 위와 같이 한국어와 우즈베크어의 조어법과 파생어를 연구한 여러 학자들의 연구와 의견을 살펴보았다. 위 학자들의 연구 견해를 보면 한·우 파생법에서 유사하게 파생접사로 쓰이는 것도 있고 다르게 쓰이는 파생접사들도 많다.

REFERENCES

1. Abdurahmonov X., Rafiyev A., Shodmonqulova D. <O‘zbek tilining amaliy grammatikasi> Toshkent, “O‘qituvchi”, 1992
2. Hamroyev M.A. <O‘zbek tilidan ma‘ruzalar majmuasi> Toshkent, 2007
3. Hojiyev Azim <O‘zbek tili so‘z yasalishi tizimi> Toshkent, “O‘qituvchi”, 2007
4. Jamolxonov H. <Hozirgi o‘zbek tili> Toshkent, “O‘qituvchi”, 2005
5. Lutfullayeva D.E. <O‘zbek tilining amaliy grammatikasi> Toshkent, “Yangi asr avlodi”, 2010
6. Mirzayev S., Shermuhamedov S.<Hozirgi zamon o'zbek adabiyoti tarixi> “O‘qituvchi”, 2007
7. 서병국(1974), <현대국어의 어구성 연구> 대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8. 성환갑(1972), <접두사연구> 서울, 중앙대학원
9. 송철의(2008), <국어의 파생어 형상 연구> 국어학회

10. 이상복(1990), <현대 국어 조어법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1. 이우승(2007),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위한 어휘 교육 방안> 동국대학교 박사학 학위 논문
12. 이재성(1990), <접두사 설정 기준에 대하여> 연세어문학
13. 이홍식(1993), <현대 국어의 고유어 접두사 연구> 광주, 전남대학교
14. 정동환(1982), <현대국어의 접두사연구> 인천, 인하대학교 대학원
15. 정영해(1997), <국어의 접두사화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논문